

# 지역 창업기업 지원 · 창업 생태계 강화

### 전북중기청,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개최 · '도전! J-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시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창업기업 지원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창업 지원 행사를 연이어 추진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중기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하고, 같은 기간 열린 '도전! J-창업콘테스트'에 참석해 대상 수상기업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4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해 협업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선배 창업가가 참여하는 스타트업 알라미나 토크콘서트와 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한다.

기반 경영전략, 회계·재무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성장 단계별 맞춤형 Meet-Up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 간 협업

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지원이 이뤄졌다.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68개사는 팀 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간 소통과 협업 역량을 높였고, 창업도약패키지 선정기업 24개사는 투자·법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화 전략과 시장 진출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도전! J-창업콘테스트'에서는 전북지역 유망 창업기업 44개사가 가운데 최종 10개사가 선정됐으며, 선정 기업들은 최대 1,3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주)을엘이 수상했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지역 창업기업의 교류와 성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 창업지원과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재난 예방 · 복구 지원 빛났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8일 '방재의 날'을 맞아 '국가재난관리 유공'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재난 취약시설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문화재와 전통시장 등 약 3,000개소를 집중 점검해 700여 건의 전기설비 위험 요인을 발굴·조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기여했

다. 또한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등 국가 주요 시설의 전기설비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노후 아파트와 전기올타리, 사회복지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생활 속 전기안전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재난 발생 시에는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해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특별 점검을 지원하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 전북자치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 앵커기업 협업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앵커기업 간 협업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2026 기후테크 특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실증(R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증이 가능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과 앵커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으

로, 총 6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제에는 과제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실증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분야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다. 에너지 데이터 솔루션, 탄소배출량 추정 플랫폼, 재활용 선별 기술, 스마트팜 기반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실증 사례로 제시됐다.

선정 기업에는 기술 실증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COMETUP 2026' 참가, 투자(IR) 프로그램, 데모

데이 및 성과공유회 참여 기회 등 후속 성장 지원도 제공된다.

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여야 하며, 전북 내 사업장 보유 또는 협약 후 3개월 내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앵커기업은 전북 소재 기업으로 실증 인프라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스타트업과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중기청 · 전북조달청 공공조달 활성화 현장 소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전북중기청과 전북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주에 있는 냉장·냉동 시스템 제조기업 (주)신진에너텍을 방문해 공공구매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을 15%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공판로 확대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양 기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열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26일 언론인, 대학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전력산업의 주요 이슈를 외부 전문가들과 심층 논의하고,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현황과 전북지역 계통 운영 상황, 전력망 건설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과 계통 운영의 현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26일 언론인, 대학교수, 환경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실적 과제,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자문위원들은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

어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6회 전북 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 전북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 '제6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방사선 융합 인프라 연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6회 전북 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8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요 바이오 기관장들이 참석해 산업 간 융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바이오포럼은 바이오 분야 융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바이오 분야 혁신 네트워크

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지원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의 주요 연구개발(R&D) 성과와 연구 시설이 소개됐으며, 사이클로트론과 RT-Bionics 등 주요 시설 투어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방사선 기반 연구 인프라와 바이오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정부 정책 동향과 바이오 산업 현안이 공유됐으며, 기관별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과 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북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공동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